KIA 야수들은 진화중

KIA타이거즈가 1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마무리캠프 마지막 홍백전을 갖고 훈련 성과를 점검했다. 사진은 주자 오선우가 10회초 공격에서 3루 진루를 시도하는 모습. /김여울 기자 wool@

KIA, 마무리 캠프 마지막 자체 홍백전…훈련 성과 점검

이우성·박진두 홈런포 … 코치진 "수싸움 늘었다" 만족감

'호랑이 군단'의 방망이 점검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KIA타이거즈가 1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자체 홍백전을 가졌다. 이번 마무리 캠프 4번째 연습경기이자, 마지막 실전 점검 자리였다.

윌리엄스 감독이 이끈 마무리캠프 선수단은 지난 10월 28일 첫 홍백전을 진행했다. 이후 두 차례 더 연습 경기를 갖고 캠프 중간 점검을 했다.

앞서 세 번의 연습경기는 정규이닝보다 부족한 5이닝, 7이닝에서 끝났지만 이날 마지막 경기는 달랐다.

경기는 9회를 넘어 10회까지 진행됐다. 마무리캠프 선수단이 총출동해 훈련 성과를 확인하는 무대가 펼쳐졌다.

이번 캠프를 통해 KIA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는 극심한 '투고타저' 완화다.

올 시즌 KIA는 '젊은 마운드'의 힘을 과시하면서 수비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하지만 세대교체라는 불이 발등에 떨어진 야수진은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로 고민하고 있다. 장타력 보강이라는 숙제도 있다.

KIA는 '젊은 야수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력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춰 마무리캠프를 진행했다.

윌리엄스 감독이 직접 훈련을 이끌었고, 송지만과 최희섭 코치를 새로 영입해 각각 우타자와 좌타자로 나눠 맞춤형 지도와 관리도 했다.

또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 단체 훈련 시간을 최소화했다. 최대한 집중해서 훈련을 소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네 차례 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변화를 살펴본 코칭스태프는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날 경기에서 적극적으로 작전을 내고 이를 점검한 윌리엄스 감독은 선수들에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좋았다. 캠프에서 마지막 경기였는데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집중력을 더 키워야 한다"며 스프링캠프와 새로운 시즌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송지만, 최희섭 코치도 달라진 선수들의 모습에 후한 점수를 줬다.

송 코치가 선수들에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나쁜 볼에 손이 나가지 않는다"였다. 투수들과의 수싸움을 위해 나쁜 볼을 참아내면서 자신 있는 코스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던 게 결과로 드러났다는 이야기였다.

"투볼 투스트라이크 이상 승부를 펼친 선수들 손들어보라"며 박수를 보낸 최 코치도 "공 하나하나와 싸우고 있다. 풀카운트까지 가고 많이 좋아졌다"고 미소를 지었다.

각자의 장점을 살려 타석의 집중력을 높인 타자들. 이날 경기에서 우타자 이우성과 좌타자 박진두가 각각 좌완 김기훈과 사이드암 박정수를 상대로 담장을 넘기는 등 기다렸던 '한방'도 나왔다.

한편 10월 14일 시작된 KIA의 마무리캠프는 오는 17일 종료된다.

지난달 17일 입국해 다음날부터 마무리캠프를 지휘하며 열정을 보인 윌리엄스 감독은 13일 마지막으로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 뒤 15일 귀국한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선수들, 어린이 팬들에 일일코치

16일 함평 챌린저스 필드서 타격·수비 등 야구 교육 프로그램

KIA타이거즈가 16일 어린이 팬과 함께하는 야구교실을 개최한다.

이번 야구교실은 KIA타이거즈 어린이 회원을 대상으로 함평 KIA 챌린저스 필드 그라운드와 실내연습장에서 열린다.

야구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캐치볼과 투구, 타격, 수비 훈련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오전 9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모여 KIA타이거즈 선수단 버스를 타고 함평까지 이동한다.

KIA타이거즈 코치와 선수들이 일일 강사로 나서 어린이들에게 꼼꼼하게 야구 기본기를 가르쳐줄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2019년 KIA타이거즈 어린이 회원 중 선착순 30명이다. 참가 신청은 13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어린이 회원 가입 인증 후 신청)에서 이뤄진다.

참가자에게는 어린이 배트가 기념품으로 주어지며, 선수단과 단체 사진 촬영, 티볼 게임 등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IA타이거즈 홈페이지와 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호날두 '무단 퇴근' 논란

AC밀란전 교체 뒤 경기 종료 전 귀가
도핑규정 위반 징계 땐 2년 출전 정지

조기 교체에 불만을 품고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퇴근'(?)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도핑 규정 위반으로 최대 2년의 출전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호날두는 한국시간으로 10일 펼쳐진 AC밀란과 2019-2020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12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10분 만에 파울로 디발라와 교체아웃됐다.

유벤투스는 호날두 대신 투입된 디발라가 후반 32분 결승골을 터트리면서 1-0 승리를 거두고 개막 12경기 무패(10승 2무)로 선두 질주를 이어갔다.

하지만 디발라와 교체된 호날두는 벤치가 아닌 라커룸으로 향했고, 경기 종료 전에 해당 경기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다.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는 "호날두가 교체되면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라며 "자신을 교체한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라커룸으로 돌아간 호날두는 경기 종료 3분 전에 경기장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대표팀 공격수 출신의 안토니오 카사노는 이탈리아 TV쇼 '티키타카'에 출연해 "호날두가 경기도 끝나기 전에 경기장을 떠났다면 도핑 규정에 따라 2년의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역 시절 '그라운드의 악동'으로 불렸던 카사노는 "AS로마에서 뛸 때 라치오와 경기가 끝나기 전에 경기장을 떠난 적이 있었다"라며 "2년 징계 규정 때문에 급하게 경기장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정환 감독, 일본행

日 언론 "2부리그 지바 감독 확정"

윤정환(46) 감독이 다음 시즌 일본프로축구 2부리그(J2리그) 제프 유나이티드 이치하라 지바의 지휘봉을 잡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스포니치아넥스 등 일본 매체는 12일 "사간 도스, 세레소 오사카 등을 지휘한 윤정환 감독이 다음 시즌 지바의 사령탑에 취임하는 것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올 시즌 지바는 2009년 이후 10년 만의 1부리그 승격을 목표로 세웠지만, 시즌 중 사령탑 교체에도 현재 10승 13무 17패로 2부리그 16위에 머물러 있다. 내년에도 2부리그에서 뛰는 게 확정된 상황이다.

시즌 초 성적 부진으로 해임된 후안 에스나이데르 감독 후임으로 지바를 이끌어온 에지리 아쓰히코 감독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퇴임한다고 지바 구단이 11일 밝혔다. 선수 시절 J리그에서도 뛰었던 윤 감독은 일본 사간 도스 코치와 감독대행을 거쳐 2011년 정식 사령탑으로 부임해 팀의 창단 첫 1부리그(J1리그) 승격을 이끌며 지도자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금호고를 졸업한 윤 감독은 2015년부터 2년간 K리그 울산 현대를 이끈 뒤 2017에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세레소 오사카를 지휘하며 J리그컵과 일왕컵을 우승을 일궜다. 올해 4월부터는 태국 무앙통 유나이티드 감독을 맡아왔다.

/연합뉴스

축구 해외파 레바논 총출동

벤투호 내일 월드컵 아시아 예선…손흥민·황의조 등 출전

유럽 무대에서 맹활약 중인 '해외파' 선수들로 무장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정복에 나섰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오는 14일 레바논과 2022년 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경기를 치른다. 오는 19일에는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도 예정돼 있다.

대표팀은 지난 11일 새벽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해 출발했다. 이들은 UAE 아부다비에서 훈련을 진행한 뒤 14일 오후 10시 레바논 베이루트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갖는다.

대표팀에게 레바논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대다. 2014 브라질 월드컵 2차 예선 당시 FIFA랭킹 31위였던 한국은 146위에 머물렀던 레바논에게 1-2로 패한 '레바논 쇼크' 경험이 있다. 레바논은 2012년 중동 강팀인 이란을 1-0으로 꺾은 전적도 있다.

한국은 2차 예선 H조 5개 팀 중 1위(2승 1무)에 위치했으나, 2위 북한과 승점이 7점으로 같다는 점에서 더욱 방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 든든한 전력으로 경기를 준비했다. 최근 한국인 유럽 프로축구 최다 골 기록을 경신한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해 황의조(보르도), 이강인(발렌시아), 황희찬(잘츠부르크) 등 선수들이 대표팀으로 출전한다.

이들은 19일 오후 10시30분 아부다비 모하메드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브라질과의 경기에도 출전한다. 브라질은 피르미누(리버풀)와 가브리에우 제주스(맨체스터 시티), 카제미루(레알 마드리드), 필리피 코치뉴(바이에른 뮌헨) 등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다.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는 최근 허벅지 부상을 입어 출전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재 기자 yjyou@

'K리그1' 향한 마지막 도전

K리그2 플레이오프 대진 발표…23일 안양-부천 준PO

K리그1을 향한 마지막 도전이 23일 시작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2 플레이오프(이하 PO) 대진을 12일 확정해 발표했다.

K리그2 준PO와 PO는 상위팀 홈구장에서 열리며, 단판 승부로 전개된다.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 상위팀이 승자가 된다.

3, 4위 간 대결인 'K리그2 준PO'는 23일 오후 3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창단 후 처음으로 PO진출에 성공한 3위 FC안양과 극적인 5연승으로 4위를 차지한 부천FC의 대결이다.

안양은 올 시즌 부천에 2무 2패로 약세지만, 안방에서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새 역사를 노린다. 안양은 올 시즌 18경기에 6만5557명의 관중(평균 관중 3642명)을 불러들이면서 부산아이파크(총관중 7만1000명·평균관중 3944명)에 이어 관중 2위를 기록했다.

준PO의 승자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부산구덕운동장에서 'K리그2 PO'를 치른다.

부산은 올해 안양에 1승 2무 1패, 부천에 2승 2무의 성적을 거뒀다. 이 대결의 승리팀은 K리그1 11위 팀과 '승강 PO'에서 만나 강등과 승격을 놓고 최후의 대결을 벌이게 된다.

'승강PO'는 2차전까지 진행된다.

12월 5일 오후 7시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팀 홈 경기장에서 1차전, 8일 오후 2시 K리그1 11위 팀 홈경기장에서 2차전이 열린다.

두 차례 맞대결에서 승리 수가 많은 팀이 승자가 된다. 승리가 같을 경우 득실차, 원정다득점, 연장전(전·후반 15분), 승부차기 순으로 승리팀을 결정한다.

/김여울 기자 wool@